

본문 : 야고보서 1 장 1 절

제목 :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

1. 지푸라기 서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중에 야고보서 설교를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야고보서를 설교 말씀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로서도 야고보서 설교는 처음입니다. 야고보서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밥 신세인 이유는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영향이 큼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에게 야고보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바울 서신처럼 믿음을 강조하지도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쓸모 없는 책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죠. 과연 야고보서는 루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쓸모 없는 지푸라기같은 서신일까요?

야고보서라는 이름을 통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어성경에서는 James 라 불리고 스페인어로는 Diego, Tiago, Santiago 라 불리고 프랑스어로는 Jacques(쥬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편지의 저자 야고보는 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 아니야?'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 장 12 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형제와 어머니를 당신의 사역에 동행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고전 15 장 7 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 장 13 절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할례와 율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갈라디아서 2 장 9 절에서는 초대교회의 선교 총괄자로 불리기도 하구요. 1 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Josephus 는 야고보가 돌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핍박과 환란중에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2.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서신을 여는 말을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란 말은 너무나 클리어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도라 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 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퀴리오스' 또는 '세바스토스'라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트라는 호칭 자체의 뜻이 '거룩한, 신성한, 존엄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헬라말이 Sebastos (σεβαστός)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퀴리오스, 즉 주인은 오로지 로마 황제 한 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경배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이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목숨을 내 놓고 고백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만약 로마 황제나 관리들이 보았다면 사형감에 해당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감히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인가요?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내 친형이라지만 야고보는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러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3.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 두 지파 (Diaspora)

1 절에는 편지의 발신자에 이어 수신자가 곧바로 나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 두 지파에게"라고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이라고 풀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Diaspora(διασπορά)'라는 한 단어입니다. 씨를 흩어 뿌린다는 뜻이 디아스포라의 원래 의미입니다. 흩어 뿌려진 씨앗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 하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당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피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즉 가난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제된 표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수의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와 배척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시민이 아니고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항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소설가 김영하의 소설 <검은꽃>은 조선말기 대한제국 시절에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의 이주 노동자로 살았던 멕시코의 조선 디아스포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네켄이라는 밭줄의 재료가 되는 식물의 이파리를 채취하는 농장을 아시엔다라고 불렀고 조선인들은 애네켄 아시엔다의 계약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망해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계약 자체도 너무나 불평등한 계약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농장주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 4년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 뿐 아니라, 브로커에게 미리 지불된 돈을 다 갚아야 풀려날 수 있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통역사였던 권용준이란 사람은 이주민들과 농장주 사이에서 권력을 휘두르는데 정말 꼴사납게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이런 소설을 통해 우리는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비참함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 서두부터 '시험'에 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시험가운데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4. 디아스포라 편지

당시에 '디아스포라 편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지도자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이죠. 편지의 목적은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과 윤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흠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열 두 지파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가운데 있는 흠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의 뿌리로부터 벗어나 흠어져 살아가다 보니 정체성을 잃고 삶의 위기에 처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문화적, 종교적, 윤리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 주류 사회에 물들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사회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주류사회는 다수이고 디아스포라들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계에 흠어져 사는 이라 번역돼 있죠. 세계라는 말이 바로 주류사회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세계 또는 세속으로 번역되는 cosmos (κόσμος)라는 헬라말이 세 번 나옵니다. 1 장 27 절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라”, 3 장 6 절에서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4 장 4 절에는 “세상과 벗함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대하면서도 일관된 악의 방향을 일컬어 야고보서는 ‘코스모스, 세상’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를 한마디로 ‘세상’이라 표현한 것이죠. 세상, 즉 주류 사회를 향한 삶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러한 세상의 뒤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격적인 세력이 Devil and Demon(악마와 귀신)이라 합니다. 요컨대 흠어진 자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세속이고 세상이라 표현되는 곳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매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5. 대안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으로 흠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뜻이 있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세상 속으로 흠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1 장 27 절). 목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잉크를 많이 다루다 보니 손이 잉크로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주류사회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와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이야기에 현혹되어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류 사이의 이야기에 맞서 대안적인 이야기로 그 사회를 물들이라 권합니다.

당시 1 세기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야기는 무엇이였겠습니까? 로마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사회는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힘과 부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란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죠?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치는 욕구와 욕망을 이끌어 냅니다. 욕구와 욕망은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요. 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듯 이야기 속에는 가치가 숨겨져 있고 그 가치는 우리의 욕구를 조정하고 그 욕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여 삶의 방식이 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높은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주류 사회의 이야기라 합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따라 살겠죠. 돈을 많이 갖고 좋은 것을 많이 소비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멋진 삶이야 라는 이야기는 끊임 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이야기에 쉽게 물들 수 밖에 없죠. 그것이 멋져보이고 그것을 갖출 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경쟁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버리고 그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2 장의 첫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가난한자의 이야기로 시자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야기-가치관-욕망-삶의 방식 -이야기는 계속 순환하며 영향을 주는 패키지입니다.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라고 부탁드립니다. 주류 사회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은근하게 스며들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퍼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야기도 교회 속으로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옵니다. 야고보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두 이야기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온전함(perfection, wholeness)이라는 주제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이죠. Doubled 되지 않고 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이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6. 보냄을 받은 자들

세상의 이야기는 그 사회의 역사를 통해,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전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세계 어디에 가든 한국인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들의 특징은 그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나밖에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인을 향한 경쟁이 다른 민족보다 심합니다. 그 경쟁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벌이나 직업은 마치 부모들의 훈장이나 성적표처럼 여겨져 비교대상이 됩니다. 이 비교와 경쟁에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 한국적인 이야기와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만납니다. 어메리칸 드림이라고도 표현되는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의 만남이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비교와 경쟁이 기본 정서로 깔려 있기에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많은 이민교회들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세상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마다의 로컬 스토리가 더해집니다. 로체스터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회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분별해 내기 힘듭니다.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제 3자가 되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공동체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의 서신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 없이 어떤 이야기가 전제 되어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선택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 로체스터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교사들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입니다. "보냄 받은 사람", "보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해 흠어진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내신 분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개인처럼 집단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분위기, 우리 교회가 함께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체스터에 많은 한인들이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매력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이야기는 너무 강력하고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매력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야고보는 로체스터의 흠어진 자들의 공동체인 다하나 교회에 강력한 도전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참 모습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함께 흠어져 살아가는 주 예수님의 종 된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문안하십시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아름다운 행동방식으로, 보내신 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